

미국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 중인 한국 농학생의 유학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 희망에 관한 질적 연구*

최 성 규**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요 약》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인을 위한 종합대학교인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현재 한국의 농대학생 4명이 재학하고 있다. Gallaudet University 유학과 관련된 배경,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희망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및 집단 면담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 모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 유학을 결정했으며, 영어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비싼 등록금이 Gallaudet University에서의 수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수학한 다음에 귀국하여 우리나라 농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의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농교육, 유학, 진로결정, Gallaudet University

I. 서 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목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인간 육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청각장애 학생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여 사회인으로서 자활할 수 있게 가르치며,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목표에 이견을 제시할 교사나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장차 사회에서의 직업재활 등과 관련된 독립적인 생활의 영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창된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은 오늘날 청각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환교육은 고용,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및 대인관계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김병하, 1989; 김진호, 1999; 박희찬, 1999; 이효자, 1997; 조인수, 2000; Halperm, 1994).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청각장애학생 스스로가 장래의 직업을

* 본 연구는 2006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skchoi@daegu.ac.kr)

올바르게 선택하고 계획하여 졸업 후 취직 또는 진학을 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장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정서적·기능적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기초적 과정이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은 시대에 따라 달리 접근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취업 현황 분석, 청각장애학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한 사회 요인 분석 연구, 청각장애학생의 낮은 문식력과 학업성취도가 미치는 직업선택과 만족도 연구, 농문화 인정과 농인을 위한 정당한 인사 및 행정, 농인과 청인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방안, 그리고 농인의 이직률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형이 개발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1997; 박희찬, 1999; 조인수, 2000; 최성규, 1997;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형이 개발되어도 사회구조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최영표 외, 1986). 즉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획일적이다. 건청학생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고, 인문계는 다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구분되며, 실업계에서는 상업, 공업, 수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획일적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성이 제시될 수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각장애학생의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노동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다.

상위학교 또는 대학교 진학도 전환교육의 일부이다(Moores & Martin, 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5년부터 시행된 장애학생 특례입학제도로 인하여 많은 청각장애학생이 대학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① 청각장애학생이 청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설비, ② 학습보조 등을 위한 컴퓨터 대여, 대필, 그리고 수화 통역자 배치, ③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김영미, 1999), 청각장애학생이 주관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사회구조상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Washington DC에는 Gallaudet University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농 중합대학교가 있다. 다섯 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학생 가운데 약 80%가 농학생이다. 학부학생은 거의 100%가 농이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학생이 학부에 입학한다. 교직원 수는 약 300명이며, 교직원의 약 60%가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에 8대 총장으로 King Jordan 박사가 선출되었는데, 그 역시 농인이며, 2007년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총장 역시 농인이다.

모든 단과대학의 직원과 교수는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음성 사용은 선택적이나 수화는 의무적이다. 모든 회의에서 수화 사용은 의무적이다. 또한 모든 교수는 학생의 욕구에 맞는 대화방법에 익숙할 의무가 있다. 학생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수화와 입술읽기로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고, 언어치료 프로그램과 보청기와

관련된 청각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로운 교직원에 대한 수화 능숙도와 만족도는 이를 평가하는 기관에 의해 인정되며 모두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Gallaudet University는 학생을 우선하는 대학교, 그리고 교수의 전문성이 학생중심으로 형성된 대학교로 이해된다(강위영 외, 1997).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중문화체제에서 수화를 외국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즉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외국어에는 불어, 중국어, 아랍어 등과 함께 수화도 자리를 함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화 외국어 강사는 모두 농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미국의 농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이 아닌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사회구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학생과 농인들은 미국의 농학생과 농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였다. American dream이라고 표현된 그 당시의 이민은 곧 희망과 미래였다. 지금도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와 동일하게 ‘희망’을 위한 한 중대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현재 Gallaudet University에는 4명의 한국 농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3명은 모두 남학생으로 4학년이고, 1명은 여학생으로 1학년이다. 그러나 Gallaudet University는 주립대학교가 아닌 연방대학교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장학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학생들은 1학점 당 약 1,000불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학기당 12학점을 수강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 약 12,000불을 학비로 지출하게 된다. 물가가 비싼 Washington DC의 기숙사비와 기타 생활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한 학기에 약 20,000불 이상이 예상된다(www.gallaudet.edu). 또한 바로 대학교 본 과정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수화 과정을 마쳐야 하고 또한 영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요구되므로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국 농학생이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에서 졸업까지 소요되는 예상 경비는 한화로 약 2억 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유학을 마친다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들을 위한 향상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석·박사학위를 받고 이곳 Gallaudet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조경건 박사는 30여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강주해, 1989).’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한 훌륭한 농인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학생은 인생의 귀로에서 미국 유학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 중인 한국 농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 희망에 관한 생각을 질

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농대 학생 4명이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참여자	A	B	C	D
기초사항				
성별	여	남	남	남
연령	30	25	35	31
학년	1	4	4	4
미국의 최초입국일	1992년	2001년	1992년	1999년
입학년월일	2005년	2002년	2001년	2001년
졸업 예정일	2009년	2006년	2006년	2006년
청력손실 정도 (우측/좌측dB)	100/95	90/95	100/100	100/110
출신학교	일반학교	청각장애학교	일반학교	청각장애학교
부모의 생활정도	하	하	하	하

2. 연구절차

- 1)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문할 내용을 유목화하였다.
- 2)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연구절차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한국수화였다.
- 3) 연구의 목적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 4) 개인별 면담과 집단면담을 각각 실시하였다.
- 5) 면담결과는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 6) 분석결과를 기록하고 유목별로 정리하였다.

3. 자료처리

1) 연구자의 수화분석 신뢰도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수화분석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의 수화분석 신뢰도는 연구자와 두 명의 수화통역사가 기록한 문장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참여한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화통역 업무를 약 10년 이상 수행한 2명이었다. 연구자의 수화분석 신뢰도 공식은 $\{(일치 문장의 개수 - 불일치 문장의 개수) / 일치 문장의 개수\} \times 100$ 으로 하였다. 3회에 걸쳐 실시한 연구자간 수화분석 신뢰도는 모두 95% 수준 이상이였다.

2) 자료제시

분석된 기록은 유목별로 정리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서술식으로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Gallaudet University 유학과 관련한 배경

1) 입학 동기와 계기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한 동기와 계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네 연구 참여자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한 동기와 계기

참여자	내용
A	2002년 미국에서 개최된 Deaf Way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농대학교에 관심을 가졌다.
B	미국 대학교는 교육환경은 장애인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교에 재학할 당시부터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C	고등학교 졸업까지 미국에서의 수학 계획은 없었다. 졸업 후에 가진 전자회사의 TV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했다.
D	먼저 유학한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

청각장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이미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농학교 재학 당시 또는 농학교의 선배로부터 미국 유학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건청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Gallaudet University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뇌 또는 농인의 협의회 참석이라는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입학 목적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한 목적은 표 III.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III.2> 입학 목적

참여자	내용
A	농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농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며 또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후진국의 농교육을 지원하고 싶다.
B	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C	졸업 후에 농교육을 위해 종사하고 싶다.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
D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학하게 되었다.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한 목적은 모두들 농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는 열정이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의 만족도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 이후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표 III.3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II.3> 교육의 만족도

참여자	내용
A	만족한다.
B	만족한다.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다.
C	만족한다. 특히 미국장애인법에 기초하여 수화 등을 교육환경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무척 놀라고 있다.
D	생각보다 만족감이 매우 높다.

Gallaudet University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 모두는 무척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장 만족스러운 것

Gallaudet University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에 대하여 표 III.4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III.4> 가장 만족스러운 것

참여자	내용
A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다는 점
B	수화로 토론과 대화가 가능하며 농인만이 아니라 건청인과도 영상대화가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
C	인종을 떠나서 모든 농인이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또한 영상대화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D	교수, 학생, 행정가 등과 같은 모든 사람과 수화로 대화할 수 있다.

건청인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농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만한 의사소통의 한계이다. 그러나 Gallaudet University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농 유학생의 가장 큰 만족도는 역시 원만한 의사소통이 보장된다는 점이며, 나아가 영상대화가 언제든지 누구와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만족감이라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영상 대화 매체인 Video Relay Service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으면 한다.

5) 불만스러운 일

Gallaudet University의 재학과 관련하여 가장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불만스러운 일

참여자	내용
A	수화를 못하는 교수가 가끔 있다는 점
B	자연계 계열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C	등록금 자체가 한국에 비해 무척 높으며 또한 매년 등록금 인상이 지나친다는 점
D	미국 시민권자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점

Gallaudet University에서의 불만스러운 일은 의사소통의 제한이 일어나는 환경에 노출될 때, 자연계열에 대한 전문적인 학과의 제한 등으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한, 그

리고 높은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ESL 과정 유무와 년수

Gallaudet University의 입학과 관련하여 ESL 과정의 이수 유무와 이수 년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III.6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II.6> ELS 과정 유무와 년수

참여자	내용
A	미국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한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과정과 English Language Institute(ELI)에서 2년간 어학연수를 받았다.
B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받았다.
C	2년 동안 ESL과 ELI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Montgomery College를 졸업했으며,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영어 학점을 받았지만, Gallaudet University에서 어학연수를 다시 받았다. 학교 입학은 쉽게 결정되었지만,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쳐서, 그 결과에 따라 어학연수를 받기도 한다.
D	1년 동안 ESL과정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Gallaudet University에서는 미국수화와 농문화가 포함된 영어 교수방법인 일종의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접근법과 함께 영어의 읽고 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수화를 습득한 경우와 건청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어학연수 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수화와 농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유무에 따라 어학연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농학교와 건청학교 졸업에 따른 차이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개인차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내의 다른 대학교의 졸업 유무와는 상관없이 수학능력 시험을 쳐서 다시 어학연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학비 조달 방법

Gallaudet 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학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네 연구 참여자는 표 III.7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II.7> 학비 조달 방법

참여자	내용
A	부모가 도와준다.
B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3배나 비싼 등록금으로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웨덴과 네델란드 등과 같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프리카의 몇몇 후진국에서도 농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이 있고, 학비만이 아니라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학생을 위한 학비지원에 대한 행정적 보조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학비 문제로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의사소통의 한계로 제한된 직종에 근무를 해야 하고, 수업시간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C	Gallaudet University에서의 시간제 일, 미국의 한국인 장학재단의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D	미국 장학재단, 한인교회, 주변의 교민, 그리고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학비 조달은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은 없으며, 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인 장학재단,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과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농학생과 그들의 부모 가족이 겪어야 하는 현실적 고통을 엿볼 수 있다.

8) 수학의 어려운 점

Gallaudet University에서 수학하는데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III.8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II.8> 수학의 어려운 점

참여자	내용
A	영어 원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크다.
B	영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크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 선생님들의 교수법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미국에서 영어를 다시 공부하느라 많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C	영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다.
D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건청 유학생이 미국에서 수학하는데 경험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이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인 것과 같이 농대학생들도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있어서 모두 영어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영어 교수법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영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확신이 충분한 인터뷰 내용이었다.

9) Gallaudet University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 정도

Gallaudet 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 정도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표 III.9> Gallaudet University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 정도

참여자	내용
A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다.
B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점차 나아졌고, 이제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C	미국 교육과정은 잘 정선되고 조직되어 있어서 본인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D	처음에는 미국수화로 수업이 되고, 문화적인 어려움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강의 담당 교수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Gallaudet University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미국수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농문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의 차이점 등

Gallaudet University와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II.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III.10> Gallaudet University와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의 차이점

참여자	내용
A	Gallaudet University에서는 모두 수화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농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 대학은 토론을 많이 하고 전체 발표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다.

참여자	내용
B	우리나라 대학교에 재학한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수가 10분에서 20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과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들끼리 다시 토론하게 한다. 또한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게 되므로 시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좋은 수업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농인 교수가 많은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농인의 발전을 돕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여한 농인들의 교육기회 평등권이 오늘날 농인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D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수화통역사 제도가 보편적이지 않다. 학교 수업에서 교수가 수화를 하지 못하면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와 Gallaudet University의 차이점은 역시 강의 시간에 교수가 직접 수화를 사용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의 한계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Gallaudet University의 특성상 가능한 사안일 것이다. 그리고 Gallaudet University를 통하여 많은 농인 인재를 양성한 결과로 농인의 미국 내에서의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은 곧 희망’이라는 문구가 제시하는 참뜻을 되새겨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와는 달리 강의 방법에 있어서 토론식 수업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대별되는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2. 졸업 후의 진로 희망

1) 학업 이후의 귀국 여부

학업을 마친 다음에 귀국을 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의 면담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학업 이후의 귀국 여부

참여자	내용
A	귀국할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한국 농교육 발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참여자	내용
B	학업을 마친 후에 석사과정에 이어서 박사 과정까지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 학사 과정에서 졸업한다고 해서 충분히 경험을 얻지 못한다.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직 끝이 없어서 더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귀국해서 농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업을 마친 후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 농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싶다. 학업을 마친 다음에 인턴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C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으므로 사고방식이 이미 미국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농인들의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해주는 곳이므로 파라다이스와 같다.
D	학업을 마치면 인턴하고 여러 일로 많이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고용 기회가 있으면 귀국할 것이다. 한국 농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유학 목적은 일반적으로 농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귀국 유무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미국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한 결실이 모국인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2) 귀국시 종사하고 싶은 직종

우리나라에 귀국하게 될 경우에 종사하고 싶은 직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귀국시 종사하고 싶은 직종

참여자	내용
A	농교육과 농문화 관련 대학교수
B	수학과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싶고, 농인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C	만약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나는 3-6세 가량의 농유치원생을 가르치고 싶다. 조기교육을 통하여 수어를 지도하여 바람직한 언어발달과 인지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또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미국수어를 지도하고 싶다.
D	농학과 농미디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로 종사하고 수어언어학에 관해 연구하고 싶다.

귀국 후에 선호하는 직장은 대체로 대학교수이다. 그러나 본인의 전공과 상위 학위 취득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서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3) 본인의 노력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의 보상

우리나라에 귀국하면 본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

문에 대한 응답은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본인의 노력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의 보상

참여자	내용
A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서 우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한 선배들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지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귀국 못하고 미국에 남아서 돈 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 문제를 개선해서 유학한 농인을 환영해서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유학한 다음에 미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 농유학생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C	미국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국에서는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D	현재로서는 나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가수준의 보상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유학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이 지배적이다. 특히 먼저 유학을 마친 농인 선배들의 미국에서의 생활을 보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인 인재를 양성해야 농사회와 농교육의 발전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4) 미국 영주와 전공

미국에 영주하고 싶으면 내 전공과 관계없어도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면담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미국 영주와 전공

참여자	내용
A	그럴 마음이 없다.
B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직하면 우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일자리가 없을 때는 우리 전공과 관계가 없는 분야에 가서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C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게 되면 농 고등학교 교사로 종사하고 싶다.
D	내 전공과 밀접한 분야에 취직하고 싶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는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 취업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본인의 전공과 동일한 직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 농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우리나라 농교육의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면담 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농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참여자	내용
A	한국의 농 또는 건청 유학생들 중에서 농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목적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잘 새겨둘 것'을 부탁하고 싶다. 한국 내에서 농인들에게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공부를 마친 농유학생들에게는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B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없기 때문에 수어라는 언어를 개발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수어를 이미 언어학적으로 개발해서 현재는 미국수어는 확실한 문법적 구조로 설명도 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국 수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청교사들도 수어를 배워서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C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와 같은 대학교를 한국에도 건립되었으면 한다. 세계를 대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D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농학교 교육 과정의 개발을 위해 많은 농사회의 노력도 요구된다.

농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은 다양했다. 건청 또는 농인과 관계없이 농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와 같은 대학교의 건립을 통하여 농학생의 세계화에 대한 포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건청교사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6) 현 생활의 만족도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현 생활의 만족도

참여자	내용
A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다.

참여자	내용
B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C	나의 처해진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미국수어와 한국수어를 할 수 있으므로 농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국가의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이 한국에 비해 앞서고 있으므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한국도 시각에 따라서는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D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현 생활에 대해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른 농민에 비해 축복받은 현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7) 미국에서 취직하고 싶은 희망 직종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미국에서 취직하고 싶은 희망 직종

참여자	내용
A	농교사
B	정부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고,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C	가장 좋은 직장은 미국수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D	대학교수로 가르치고 싶다.

미국에서 취직하고 싶은 희망 직종은 농교사, 정부기관에서 컴퓨터 분야 직종, 미국 수어 교사, 그리고 대학교수이었다.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미국 대학교 입학할 희망하는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안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후배 농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면담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미국 대학교 입학할 희망하는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안

참여자	내용
A	독한 마음과 정신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공부보다 더욱 필요하다.

참여자	내용
B	공부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자세로 꾸준히 공부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학생의 신분에서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좋겠다.
C	가난한 농학생의 유학은 반대한다. 그리고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농학생의 유학도 반대한다.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원인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학생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 인터넷을 통한 국제 수준의 장학금 지원 센터 등을 잘 검색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유학을 실행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와 영어 실력, 그리고 장학금 지원을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D	다른 나라에서 객지생활을 힘들게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으로는 경제적인 여유와 장학금 지원의 수혜, 그리고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신의 유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긴장과 진지한 학습 태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한 현실의 인내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부는 건청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선택에 대한 특수성 및 보편성, 그리고 선택의 전형에 대한 표준의 변화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은 일생 동안 크든 작든 선택의 귀로에 직면한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은 일생에서 보편적인 선택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보편적인 선택만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함께 여러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이 크므로 객관적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객관적 또는 보편적 시각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자신의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공 동기와 포부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큰 학생일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다(김경근, 윤혜준, 2005; 손준중, 2006).

삶의 질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 선택한 Gallaudet University은 선택의 기회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 즉 전환교육의 한계로 이해된다. 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대하여 사회의 객관적 전형이 수용할 수 없거나 선택의 다양성이 제한된 경우에 느낀 갈등의 결과로 선택한 외국 유학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 특수교육과 또는 유사한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맹 또는 지체부자유 교수들은 다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농 교수는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즉 보상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보다 나은 전형이 출현하여 농학생의 유학도 사회와 교육의 보편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연구의 필요성 또는 공헌도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연구자 자신에게 던지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개진된다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주제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될 필요성이 없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농학생이기에 겪어야 하는 유학 경험의 특수성이 더 이상 논제의 가치로 회자될 필요가 없는 사회체제에서의 지원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가치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면 이는 보다 나은 농교육과 농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현실로 실행된다는 것에 전제할 경우에 한정하고 싶다. 이제는 보다 보편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바람을 제시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Gallaudet University의 입학과 관련된 배경,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희망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유학생은 졸업한 학교의 배경에 따라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대한 사전 지식은 다르다. 즉 청각장애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농학생에 비해 일반학교를 졸업한 농학생은 Gallaudet University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한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이는 출신학교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Gallaudet University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의 제한으로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며, 부모 또는 친지가 일반적으로 전담해야 하는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Gallaudet University의 제한된 학과 개설, 즉 다양한 자연계열의 미비가 단점으로 제기된다. Gallaudet University의 입학자격에는 TOEFL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지만, 본 학과 입학 전에 약 2년 정도의 ELS 과정을 이수한다.

둘째, Gallaudet University에서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 농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 및 국가의 보상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할 경우에 본인의 전공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 진척 또는 농인 등과 관계없이 농교육에 대한 열정을 당

부하고 있으며, Gallaudet University에 입학할 희망하는 농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기초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Gallaudet University에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농학생의 진로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시각에서 제기된 한국 농교육의 문제점과 영어교육 방법론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항에 기초하여 유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1996). 특수교육 요구학생 진로교육 강화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강위영, 조인수, 박희찬, 최성규(1997). 국립재활전문대학 설립·운영 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 강주혜(1989).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창록사.
- 김경근, 윤혜준(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 김병하(1989). 청각장애자 직업교육과정 모형. 심신장애자 직업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세미나 (pp. 29-47).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김영미(1999).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실태와 문제점 분석. 석사학위 논문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호(1999). 장애아 전환교육을 위한 인지-행동훈련기법의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특수교육연구**, 6, 117-132.
- 박희찬(1999). 직업적응 훈련. 직업재활학 입문(pp. 87-99). 직업재활시설 직원 연수교재.
- 손준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조인수(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 최성규(1997). 청각장애아의 심리.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최영표, 김홍주, 최경선(1986). 진로교육체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보고서(청음보고 98-01).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 Halpern, A. S. (1994).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to adult life: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15-124.
- Moore, D., & Martin, D. (2006). *Deaf learners: Developments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www.gallaudet.edu

The Study on Background for Career Decision of the Korean Deaf Students Who Are Studying at Gallaudet University

Sung Kyu Choi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Most people may decide their career after school graduation. The people who will graduate from their high school will go to work for companies or factories, or study at colleges or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y the Korean deaf students decided to study at Gallaudet University, Washington DC, USA, which is a unique university for the deaf in the world. Four Korean deaf students, three male junior and one female male,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All participants decided to study at Gallaudet University for more bright future life. The most difficulties to study at Gallaudet University are the fluency English skills and expensive tuition fee, however there in no problems in communication for study. They would like to make contribu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af educ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at many information to prepare for study at Gallaudet University will introduce for the deaf students who will decide to go to study at Gallaudet University.

Key Words : deaf education, studying abroad, career decision, Gallaudet University

논문 접수: 2007. 5. 28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6